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문제는 언어(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었고(13절),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다, 오히려 악인이 잘된다”라는 불신앙적인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 나왔습니다(14-15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들으시며, 믿음의 고백 또한 기억하십니다(16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말들과 언어의 영적 원리를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째, 말은 마음과 믿음을 드러냅니다

말에는 우리의 내면이 담겨 있습니다(눅 6:45, 마12:34, 롬 3:10~15).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넘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불신앙적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 마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말도, 믿음의 고백도 다 들으십니다(16절).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며,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들으십니다(시 139:7~10).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우리의 언어를 경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16절), 그들을 아들처럼 아끼십니다(17절). 우리의 언어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잠 18:21).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믿음, 판단 대신 축복의 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목장 모임

목장 모임 순서 가이드

1. 찬 양 : 오늘의 결단 찬양을 다시 한 번 불러 봅시다.

오늘의 결단 찬양 : “새롭게 하소서” → 찬양 QR Code



2. 대표기도 : 순번을 정해서 한 분씩 기도해 주세요.

3. 나 눔

질문 1)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 속에 내 마음과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 있었나요?

질문 2) 내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세워야 할까요?

질문 3) 하나님께서 내 작은 말까지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언어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4. 기도 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21)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9/27(토)	9/28(주일)
겔 44-46	겔 47-48, 단 1	단 2-3	단 4-5	단 6-7	단 8-9	단 10-11

Q T

이번 주 QT 말씀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9/27(토)	9/28(주일)
롬 8:31-39	롬 9:1-13	롬 9:14-24	롬 9:25-33	롬 10:1-13	롬 10:14-21	롬 11:1-10